

대용량 메일도 척척

게임업체에 근무하는 김성민 씨(28세, 남)는 새로이 출시되는 게임 타이틀에 대한 동영상 소개자료를 데이콤의 웹하드(www.webhard.co.kr)에 올려놓고 거래처와의 미팅을 위해 사무실을 나섰다.

김성민씨는 택시를 타고 가면서 거래처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오전까지 보내주기로 한 파일을 아직 못 받았다는 것이다. 김씨는 최근 자신이 보낸 메일에 종종 에러가 발생했다는 것을 상기하고 거래처 직원에게 자신의 웹하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불러 주었다. 웹하드에 접속하느라 잠시 땀을 흘리던 그 직원은 파일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메일 대신 웹하드를 이용하여 파일을 전달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미 지나 동영상 등의 사용 증가로 커진 파일 용량을 이메일이 수용할 수 없기 때문. 이에 대한 대안으로 MSN과 같은 메신저의 파일 보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했지만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잦고 전송 속도가 느려 많은 불편함이 따랐다. 이에 대해 데이콤 웹하드 사업팀의 박찬현 팀장은 "이메일 사용이 보편화되고, 업무상 없어서는 안될 수단이 되었지만 다양한 멀티미디어 파일을 사용하고 있는 최근 추세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점차 웹하드와 같은 웹 스토리지 사용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웹하드 서비스는 인터넷상에 위치한 저장 공간을 마련하여 파일을 저장, 보관하는 서비스.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해당 파일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빠르고 쉽게 용량이 큰 자료교환도 가능하며 PC장애/바이러스에 대비하여 중요한 자료의 백업용도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4월 초에 출시한 신개념 발신전용 서비스인 <빅메일>은 이메일 이용은 물론 기존 이메일을 통해서도 보낼 수 없었던 대용량 파일도 제한 없이 첨부, 발송하고 보낸 편지함을 통해 메일 수신여부 및 파일 내려 받은 횟수까지 확인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파일의 링크만 메일 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메일 수신자는 웹하드에 접속할 필요 없이 즉시 관련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다.

〈이홍우기자〉

